

문학 작품을 통해서 본 한국 주거 공간 용어에 관한 연구

Terminology of the dwelling space described in the Korean literatures

서귀숙^{*} / Suh, Kuee - Sook

김대년^{**} / Kim, Dae - Nyun

신화경^{***} / Shin, Hwa - Kyoung

오혜경^{****} / Oh, Hye - Kyoung

최경실^{*****} / Choi, Gyoung - Sil

Abstract

In this article the meanings and usages of Korean dwelling space terms were studied by reviewing the Korean literatures to clarify their meanings.

Korean literatures were selected by era. The sentences which describes the dwelling spaces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from the viewpoint of their usage. The terms about the locations and the directions were analyzed, and also the terms about the size of the spatial structures were studied.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s can be suggested :

- 1) New terms on 'bang' should be developed.
- 2) The origin of the term, 'an-bang', should be clarified and also the meaning and the value of it should be studied more thoroughly.
- 3) The differences between western dwelling space terms and Korean dwelling space terms should be studied.
- 4) Analyzing Korean dwelling space terms it was found out that the dwelling space terms were made and used by the rank of family members.

키워드 : 문학작품, 주거 공간 용어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문학 속에 나타나는 시대와 사회의 공간은 실제의 공간과는 틀리는 허구(虛構)의 공간이며, 이미지 공간이다. 즉,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이미지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의미」를 읽어 낼 수 있으며, 묘사된 공간에는 그 시대의 문화적인 의미의 본질이 표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적인 실제 공간과 같은 시각적인 공간이, 인간에게 있어서 현재적인 의식 공간이라고 말한다면, 문학 속에서 표현되는 것은 인간과 그 사회에 대한 잠재 의식 또는 무의식의 공간인 것이다. 예를 들면, 문학작품에서 하나의 집(주거)이 묘사된

문장이 있을 때, 묘사에는 주거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 내에서도 선택된 장소를 묘사한다. 다시 말하면, 주거 내의 어떠한 구체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되며, 그러한 구체적인 장소를 작가는 서술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장소를 선택한다는 것은, 작가의 의사(意思)라는 감정의 필터를 통하여 인식된 이미지 공간으로서 작가가 의도하는 의미를 갖는 공간이며, 그것은 독자에게 제공하는 하나의 메시지인 것이다. 현존하는 주거 공간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체험된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서, 그러나 작가에게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공간으로서 그의 심층을 통하여 다시 표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본연의 실제 공간에서 보여지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으나, 공간이 갖는 근원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으며 그러한 것이 독자에게 전달됨으로써 그 시대 그 사회에 있어서 또는 그 문화에 있어서 표현된 주거 공간에 대한 공간적 공통 감각을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문학과 독자는 이러한 공통 감각에 의해 그 주거 공간이 갖는 의미 또한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학은 1) 장소·공간에 대한 체험으로서

* 정회원, 서울산업대학교 건축설계학과 강사

** 정회원, 서원대학교 가족환경학과 교수

*** 정회원,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조교수

**** 이사,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전공 교수

***** 정회원,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 환경디자인전공 조교수

받아들여지며, 2) 생활 공간을 표현한 사적(史的)·문화(文化)적 자료로 사용되고, 3) 주거 공간에 대한 근원적인 인식을 표현한 자료로서의 성격이 인정된다. 이는 주거 공간 용어에 관한 연구에서 문학 작품이 적합한 연구 대상이라는 타당성과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실제의 주거 공간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작품을 연구 자료로 선택한 것은, 실제 공간 이외의 소재로부터 고찰함으로써 연구를 보다 보편적이고 원리적으로 사고(思考)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는 한국의 주거 공간 용어에 대한 이론과 개념을 문학작품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시론(試論)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타 분야에서 시작하는 고찰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격차가 문제화 될 수 있으나, 문학과 주거 공간과의 상호 접점(接點)이 되는 것은, 본질적인 공간에 대한 의미와 의식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구상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주거의 기분을 형성하는 공간과 그 사용 용어를 고찰하는 것은, 한국 주거에 있어서 그 기반을 이루는 심층적인 의미를 표출하는 것이 되며, 이를 통해서 한국의 주거 공간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한국인의 생활 공간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공간 용어의 성립 및 체계 확립의 작업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학작품에 묘사되어 있는 공간 중에서 주거 공간을 주목하여, 한국의 주거 공간 용어의 사용과 사용 의식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 방법

2.1. 문학 작품의 선정 과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 자료로써 한국 문학 작품의 선정을 3단계에 걸쳐 진행시켰다.

첫단계에서는, 국문학계의 자문을 통해 선택되었다(1). 선택에 있어서는 시대 구분(역사적 요인을 기점으로 하여 시대구분을 하였다.)을 설정하고 각 시대에 해당하는 문학 작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요구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단계에서 설정되지 않은 문학 작품을 실내 디자인 용어 위원회의 협의 하에 추가로 선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단계와 두 번째 단계의 설정 과정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결과 시대 별로 부족한 작품을 추가 자료로써 선정하였다.

이러한 선정 과정을 거쳐 선택된 문학작품은 다음과 같이 전체적인 분류를 하였다. <표-1 참조>

1. 문학 작품의 출판 년도별 분류.
2. 문학 작품의 내용에서 보여지는 배경 년도별 분류.
3. 문학 작품의 종류별 분류.

또한, 문학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표 1> 문학 작품의 분류

작품명	시대구분							
	1900 이전	1900 - 1930	1930 - 1950	1950 - 1960	1960 - 1970	1970 - 1980	1980년 이후	
1 춘향가	●							
2 흥부전	●							
3 임궫정	●							
4 대하		●						
5 귀의 성		●						
6 삼대(상,하)		●						
7 무정		●						
8 좌수분		●						
9 고향		●						
10 흙		●						
11 배따라기		●						
12 행랑자식		●						
13 흥가		●						
14 허물어진 환상*			●					
15 토지		●	●					
16 장량정기			●					
17 경영			●					
18 인간사			●					
19 맥			●					
20 소			●					
21 감자			●					
22 별을 켜다			●					
23 애미				●				
24 비오는 날				●				
25 월분				●				
26 장마				●				
27 관촌수필				●				
28 난리 그 뒤				●				
29 남풍				●				
30 미망				●				
31 고무신				●				
32 머투				●				
33 수련				●				
34 은넷골 이야기				●				
35 매아리				●				
36 환산택이				●				
37 오지에서 온 편지				●				
38 어린 상록수*				●				
39 태양의 유산				●				
40 언덕을 향하여				●				
41 장씨 일가				●				
42 환중이 수업				●				
43 남한산성*				●				
44 노을				●	●	●		
45 젊은 느티나무					●			
46 두기					●			
47 이브의 뱀신					●			
48 녹지대와 분봉의 에드벌론					●			
49 아홉개의 구두로 남은					●			
50 이여도*					●			
51 전월당인 보기				●				
52 흑산도					●			
53 꺼삐딴리					●			
54 정석초대 사람들*						●		
55 우목베미의 사람						●		
56 지상의 방 한 칸						●	●	
57 앉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							●	
58 떠 있는 망부							●	
59 목마른 계절							●	
60 모든 벽은 문이다.							●	
61 그림자 외출							●	
62 외면 방							●	

분류 범주 : ●출판년도 ●배경년도 ○대하 ◇장편 □단편 ◆중편
* 출판년도 불분명

1)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외근 선생님과 경희대학교 국문학과 김현주 선생님의 자문에 의해 문학작품을 선정하였다.

1. 작품의 형식에 의한 특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상을 소설로 한정하여 선택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각 시대별로 장편, 중편, 단편, 대하편을 선정하였다.
2. 문학은 가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허구에 현실성을 부여시키기 위하여 이야기가 전개되는 장소·공간에 대한 묘사를 필요로 하게 되며, 문학 작품의 대부분은 이야기 전개를 위한 도구로써, 장소가 되는 공간 묘사를 포함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 묘사 중에서 특히, 주거 공간에 대한 묘사 내용이 많은 문학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작품 선정 과정에서, 주거 공간이 묘사된 문학작품은 실제로 많지 않았으며, 특히 작품 출판 년도별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1919년~1945년의 일제 식민지 시대에 발표된 문학은, 당시의 상황에 의해 정신적인 내면의 세계를 내용으로 한 작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이 시대에 해당하는 작품 선정 과정에서는 고충이 있었음을 밝혀 둔다. 또한 배경 년도별 분류에서 작품의 내용상 시대가 연속되는 경우에는 시대 구분에 중복하여 표시하였다.

2.2. 문학 작품의 독해 방법

문학 작품과 주거 공간과를 상호 연관시키는 연구는 이미 외국에서 시도되어 오고 있다²⁾. 건축 분야에서는 특히, 건축사 분야에서 고대문화와 연관시키는 연구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건축뿐만 아니라 국문학 분야에서도 건축과 관련시켜 문학을 평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로는 문화 및 역사·풍속연구 분야에서도 연구가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로부터 각각의 연구 방법을 간추려 보면, 하나의 공통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연구 대상이 되는 문학 작품을 독해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을 독해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을 들 수 있다.

- 단어 수준에서 해석하는 법

2) Ellen Eve Frank : 『Literary Architec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9

奥野健男 『文學における原風景』, 集英社, 1972

奥野健男 『小説のなかの銀座』, 砂子屋書店, 1983

前田 愛 『都市空間のなかの文學』, 筑摩書店, 1982

小野恭平 『中古の文學作品からみた山里の基本的イメージとその美について』,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報告集』 第393号, 昭和53, 11月

若山 滋 『源氏物語における建築空間』,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報告集』 第408号, 1990, 2.

若山 滋 『枕草子における建築空間』,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報告集』 第411号, 1990, 5.

西垣安比古 『李退溪の陶山十曲に見る すまうことの意味』,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報告集』 第420号, 1991, 2.

Thomas Schumacher : 『From Gruppo 7 to the danteum : A Critical Introduction to Terragni's Relazione sul Danteum』,

『OPPOSITIONS』, MIT Press, Summer, 1997, 9, pp.89-107

Douglas Darden : 『Melville : An Architect's Reading of Moby-Dick』

A+U, No.272, 1993, 5, p.57-70

- 문장의 단락(정리) 수준에서 해석하는 법

- 작품 수준에서 해석하는 법

등 다양한 작품 독해법을 들 수 있다. 이중에서 건축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문장의 단락(정리) 수준에 의한 방법으로, 이는 몇 개의 문장이 하나의 이야기 전개를 위해 상호 연결되고 정리되어 하나의 집합된 문장 상태를 이루며 이러한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본의 大江健三郎은 그의 저서 『소설의 언어(小説の言語)』에서, 이러한 문장의 정리 상태에는 하나의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문학 소설 구성에서 문장의 정리는 명확히 분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학 소설을 만들어 가는 하나의 문장 block이라고 논술하고 있다³⁾. 문장에는 공간이 표현되고, 그 공간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공간이 갖는 전체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을 문장에서는 언어를 이용한 단어로 그 개념을 요약하여 지적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단어를(이하, 본 연구에서는 공간 용어라 칭한다) 추출하는 것이 단어 수준에서 문학작품을 독해하는 방법인 것이다.

예문 1) 주거 공간 표현 문장(『홍』 p.31. 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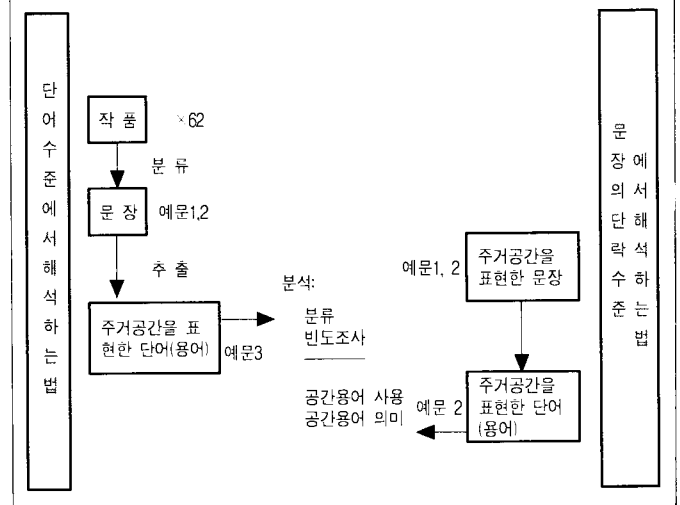
대문이 한칸, 행랑 겸 사랑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한칸, 안방이 간반, 건넌방이 한칸, 그런데 웬일인지 마루만은 넓어서, 세간, 그리고 고왕이라고 할만 한 것이 뒷간 아울러 두칸 그리고 장독대, 손바닥만한 마당, 부엌이 있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예문 2) 주거 공간 표현문장(『토지』 1부 1권, p.18. 원문)

행랑은 행랑대로 먼 곳 가까운 곳에서 모여온 마름과 작인들이 득실득실 판을 치고 있었으며 그들을 위해 가마솥은 실새 없이 밤을 삶아내야만 했다.

예문 3) 주거 공간 용어

행랑/ 사랑/ 안방/ 건넌방/ 마루/ 뒷간/ 마당/ 부엌



<그림 1> 문학 작품의 독해과정과 연구과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방법을 참고로 하여, 한국 문학작품에서 주거 공간에 대한 묘사 부분을 추출하고자 한다. i) 공간을 표현

3) 大江健三郎 : 『小説の言語』, 叢書 文化現在1 『言語世界』, 岩波書店, 1981, p.21

하는 단어에 주목하여 주거 공간 용어를 추출하며, 그 빈도를 조사하여 중요시되는 주거 공간의 개요를 정리하며, ii) 주거 공간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문장의 문맥으로부터 정리하여 주거 공간 용어의 용도와 위치, 범위, 방향별 용어 및 규모별 용어를 조사 분류하고 그 의미 등을 정리하기로 한다. 다시 말해서, 주거 공간 용어란 단어를 선택하는 방법과, 그와 관련된 문장 정리에 의한 독해법을 함께 병합시킴으로서 보다 효과적으로 문학작품을 연구 목적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3. 주거 공간 용어 추출

연구 방법으로서, 주거에 관한 공간 용어를 모두 추출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국문학적 차원에서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언어들의 집합에 의해 이루어진 하나의 Text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 내에 존재하는 하나의 주거 공간 단위(예 : 안방, 서재, 침실, ... 등)를 가리키는 용어만을 추출하였으며, 하나의 독립된 건축물 자체를 지시하는 용어는 제외하였다. 시대별 구분에 의한 문학작품에서 추출한 주거 공간 용어와 그의 용어 빈도를 집계한 것이 표-2이다.

전 문학작품을 통해서 시대별로 고찰한 결과, 1900년 이전부터 1960년까지 출현하는 공간 용어의 역사적 변화는 그다지 현저한 시대 경향이 보여지지 않으며, 단지 외국 문화의 문물이 유입되기 시작하는 식민지 시대부터 한국의 전통적인 주거 공간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주거 공간 용어가 출현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현관, 욕실, 화장실, 세면장, 응접실, 거실, 서재, 침실, 복도, 식당, 보일러실, 테라스, 베란다」와 같은 서양풍의 근대적인 주생활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이들 용어는 1980년대에 현저하게 그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한국의 전통적인 주거 공간 용어이었던 「사랑(방)」이 1950년부터 출현 빈도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1980년 이후부터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현대 주생활 공간에서 「사랑(방)」이 소멸된 현 상황과 비추어 볼 때, 문학작품의 내용에서도 이와 유사한 체험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실생활과 문학과와의 연관관계와 그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표의 빈도수에서 보여지듯이 문학작품의 내용에서 각 시대별로 「방」의 용어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조사에서 「방」의 표현은 안방, 사랑방, 건넌방, 행랑방을 제외한 모든 방을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범위로 정하였으며, 이는 그것이 어떠한 방인지 사용도는 명확한 지시를 나타내고 있으나, 명칭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 문장을 제시해 보면, 「돌이는 일지의 집으로 놀러 가고 돌이 아버지가 혼자 방에 누웠다가 두 사람을 보고 반색하며, 앉ारा⁴⁾」, 「아침 일찍이 짐을 올려다가 방을 정돈해 주고⁵⁾」, 「건넌방

과 그 방에 잇달린 또 하나의 방은 덕회가 거쳐했으며 몸체에서 그 자로 꺾인 곳의 방은 유모가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⁶⁾」에서, 방은 아버지가 거쳐하는 곳으로, 또는 어떠한 생활 공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명칭은 단지 단순한 「방」이란 용어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방」은 주거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매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숙해져 있고, 이미 개인적으로 경험된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로서 인식되는 용어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방의 용어를 제외하고 그 표현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것은, 주생활에서 중심화된 공간이기보다는 보편화되고 객관적으로 우리들의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방이기 때문에 그 사용 빈도가 많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다시 말해서 주거 공간을 가장 대표하는 용어라고 지적할 수 있다.

<표 2> 주거 공간 용어와 빈도조사

시대 구분	주거 공간 용어와 빈도
1900 이전	방:1078 안방:189 건넌방:176 사랑(방):205 행랑(방):43 대창:35 마루:208 부엌:67 마당:뜰:231 측간:침간:2 뒷간:19 광:16 곳간:21 헛간: 7 마루방:1 오양간:1 마구간:8 봉당:68 윗목,웃목:13 아랫목:25 하인침:5 모방:1 다락:11 별당:22 침실:12 뒤꼍:12 헛간:17 아랫간:12 미방:1 제청:1 부뚜막:1 잡앗간:1 장독대(가):1
1900~1930	방:296 안방:78 건넌방:56 사랑(방):152 행랑(방):67 대창:26 침간:1 마루:165 부엌:126 마당,뜰:312 뒷간,똥숫간:29 통시,변소:8 곳간:3 광:3 헛간:15 마구간:5 도방:12 다락:1 외양간,오양간:17 양살:3 윗목,웃목:28 아랫목:25 별당:30 뒤꼍:17 안꼍:1 윗간:3 별살:1 아래간,아랫간:2 후간:1 마방,마방간:6 상창:2 제청:2 청간:3 부뚜막:6 인자간:2 장간:1 울:1 현관:2 복도:2 욕실:1 목욕탕:2 아궁자:8 주방:1 찬방:4 서고:1 서재:2 욕실:1 정기:2 뒤안:8 깨대:7 장독대(가):6 마루방:1다락:1 난간:1 뒷부식: 1 뒤컨,뒤쪽:8
1930~1950	방:262 안방:37 건넌방:11 사랑(방):42 행랑(방):5 막간행랑:1 대창:16 마당,뜰:58 마루:103 마루방:3 부엌:67 아랫목:6 웃목:1 뒷꼍:2 변소:2 통시:1 뒷간:2 화장실:5 욕실:1 광:1 곳간:1 헛간:2 창고:1 외양간:2 마구간:1 퇴:1 거실:4 현관:6 출입구:1 아래층:3 위층:2 침실:3 복도:17 목욕탕,목욕간,욕탕:4 통로:1 식당:7 로비:1 취사장:10 층계,계단:22 보일러간:1 부뚜막:6 사담:1 아궁이:2 고방:1 도장:2 응접실:3 뒤컨:2 별당:1 장독(가):9
1950~1960	방:105 안방:17 건넌방:10 사랑(방):20 행랑(방):3 대창:14 마루:33 정지:2 마루방:2 마당,뜰:4 토방:1 창고:2 광:3 헛간:6 변소:7 뒷꼍:2 헛간:7 측간:1 부엌:60 부엌방:5 현관:3 서재:2 거실:3 침실:1 마구간:1 객실:1 별살:1 응접실:2 뒤꼍:1
1960~1970	방:18 안방:8 건넌방:4 사랑(방):2 대창:3 마루:15 마당,뜰:1 부엌:23 정지:1 부엌방:2 식당방:1 식당:2 통시:4 뒷간:1 화장실:1 현관: 6 헛간:1 창고:1 거실:1 응접실:1 뒤꼍:1 욕실:3 테라스:1 다락:1 찬간:1 복도:1 계단:1
1970~1980	방:94 안방:2 건넌방:2 사랑(방):2 마루:3 마루방:1 마당,뜰:5 부엌:24 정지:1 변소:8 통시:4 뒷간:2 통두간,똥통:2 현관:2 뒤꼍:1 부뚜막:2 수돗가:1 거실:1 뒤꼍:1 지하실:2 화장실:2 세면장:2 목욕탕:1
1980 이후	방:48 안방:16 건넌방:13 마당,뜰:12 부엌:24 주방:16 마루:17 거실:마루:1 거실:21 침실:10 화장실:11 변소:2 뒷간:1 지하실:2 창고:1 다락(방):9 우사:1 마구간:12 부뚜막:3 아궁이:1 장독간:1 계단:2 베란다:11 목욕탕:2 욕실:2 현관:26 아파트 현관:1 응접실:4 의상실:2 서재:6 욕실:7

범주 : 숫자는 빈도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문학작품을 통해서 공통으로 보여지는 것은 「안방」의 용어가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용어의 출현 빈도 또한 작품의 내용에 의해 다소 차이는 있으나, 시대에 관여하지 않고 출현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주거 공간에서 「안방」이 갖는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5)김남천, 경영, 은유문화사, 1989, p.228

6)박경리, 토지, 5부 13권, 숲출판사, 1993, p.111

4)이광수, 임적정, 1권, 사계절, 1996, p.105

4. 용도별 주거 공간 용어

시대별 문학작품에서 추출한 주거 공간 용어를 사용 용도별로 분류한 것이 표 3이다. 분류는 용어와 관련하는 문장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방」 공간에서 세 가지 용도, 「방」 공간에서 세 가지 용도 「마루」 공간에서 두 가지 용도, 「마당」 공간에서 두 가지 용도로 분류하였으며, 그 외 주거에서 사용되는 기능 용도별로 분류하였다.

「방」 공간 용어는 관련 문장에서 그 사용 용도가 한가지 용도만이 아닌 중복되는 다목적용의 주거 공간 용도를 보이고 있는 다양함을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용도로서, 순수한 수면 및 휴식만의 용어로 「침실」이 주를 이루며, 같은 용도로서 1950년 이후 근대에 이르러서는 「건넌방, 부엌방, 지하실방, 다락방」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특히, 「다락방」 용어는 「다락」이란 저장 및 수납용의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나(표 3의 저장 및 수납 용도의 용어 참조), 하나의 방의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침실의 용도를 갖게 된다. 관련 문장을 제시해 보면, 「가밭은 다락방 위에 못을 치고 걸어 놓았으므로 내 잠을 깨지 않으려고 살면서 다락문을 열어도 나는 오빠의 기적에 항상 잠이 깨곤 했다」에서 잠을 자는 침실의 용도로 다락방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1980년 이후에는 「안방」이 순수한 개인 침실로서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안방은 침실과 의상실로 나뉘어 있었고, 널찍한 방만도 여럿 있었다」에서 전용 침실이 있는 구조를 보이는 안방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서구식의 침실과 그 용어에 한국의 전통적인 안방이란 용어를 합성한 공간 용어로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용도로는, 침실과 가족과의 모임을 갖는 공간으로서, 「안방, 건넌방, 사랑방, 행랑방, 온돌방, 옷방, 큰방, 작은방,…」 등 주거를 구성하는 공간 중에서 방의 개념을 나타내는 거의 모든 공간을 지시하고 있으며, 한국의 주거 공간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방이 이 용도를 갖는다. 즉, 개인의 사적 공간으로서 또한 가족 공동 생활 공간으로서의 용도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장을 제시해 보면, 「큰방에서 달라진 거라고는 그 때는 없던 아이들이 지킴은 있는 그 점뿐이었다. 아이들이 깔고 뒹구는 여름용 이부자리 역시 큰방의 주인을 위하여 항상 예비해 놓던」 큰방은 부부의 침실 이었으나, 가족인 자녀들과 함께 기거하는 공동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용도로는, 침실과 손님 접대하는 용도를 함께 하는 공간이며 「안방, 사랑방, 큰사랑, 작은사랑, 큰방」 등을 가리키고 있다. 「고즈넉이 잠든 것 같은 최참판대 사랑에 들어선 이동진은 “석운 개신가?” … 최지수는 비스듬히 눈을 내리뜨리고 이동진을 맞이했다. 널찍한 어깨를 흔들고 사랑방으로 들어선 이동진은」에서 전형적인 사랑방에서의 손님 접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 주거에서 보이는 이들 세 번째 용도는

1980년 이후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 공간에서의 다목적 기능이 각각의 전문화된 또는 각 용도별 전용화된 주거 공간으로 분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방」 공간 용어 중에서 전통 주거 공간인 「안방, 건넌방, 사랑방, 큰사랑, 작은사랑, 큰방」의 용어는 개인 침실로서의 사적인 공간 용도와, 가족 생활 공간 그리고 외부 손님을 맞이하게 되는 공적인 접객 공간으로서의 세가지 용도를 함께 하는 다목적 기능의 성격을 보인다.

추출한 「마루」 공간 용어에서도 그 사용이 복합적인 용도를 보이고 있다. 「대청, 마루, 토방, 봉당」 등의 용어는 여름에 휴식 또는 침실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며 가족과의 모임 장소로, 또는 그곳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로서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수면을 취하는 침실 용도는 일반적으로 전통 주거에서도 상류 및 서민들의 주생활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장을 제시하면 「용이는 마루에 올라가서 굴러 있는 목침을 끌어 당겼다. 목침을 피고 마루에 드러눕는다. “밤기운이 설렁하고나, 마루 바닥이 찻다11)”」 (작품의 내용에서 용이는 서민 농부의 인물로 등장함) 「최지만씨는 여름이면 대개 대청에서 기거한다. 사랑보다는 대청 쪽이 시원하기 때문이다12)」 (작품의 내용에서 최지만은 상류층의 인물로 등장)이다. 그러나 1980년 이후부터는 침실 용도가 보이지 않게 되고 주로 가족들의 모임과 손님 접대용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용도로 1900년 이후에는 「양실, 마루, 거실, 응접실, 거실 마루」 등의 공간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마루」 공간 용어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대청」과 「마루」의 혼용과 「거실」, 「마루」의 혼용된 사용이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용어는 같은 공간의 명칭으로 인식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공간 용도를 갖는 「대청」은 상류 주거에서, 「마루」는 서민 주거에서 명칭 되었으며, 근대에 접어들면서 「거실」이란 서구적인 명칭으로 분리워지기 시작한다. 관련 문장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대청마루에 앉아 있던 놀부는13)」, 「방에서 대청으로 나온 치수는 화문석을 깔아 놓은 자리에 앉았다. “올라오시오.” 평산은 절로 허리를 굽히며 조심스럽게 마루에 올랐다14)」에서 「대청=마루」의 내용을 읽을 수 있으며, 계층별 명칭이 상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용어의 구분을 무엇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의 집 대청은 안채의 서남쪽에 단아서 몇 해 전에 지은 것이다. 밑층은 곳간으로 쓰고 윗층은 마루를 깔아서 여름이면 객실 겸 기거도 하는 것이다.15)」의 내용을 해석해 보면, 주거 공간 단위의 명칭으로서 「대청」을 사용하고, 그 공간의 건축 재료에 의해 「마루」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청이 일반적인 방의 온돌 구조와는 다른 나무 바닥의 구조를 갖는 사실과 일치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11) 박경리, 전계서, 1부2권, p.172

12) 손소희, 남풍, 동서 문화사, 1987, p.240

13) 작자미상, 흥부전, 박화복 편지, 을유문화사, 1964, p.75

14) 박경리, 전계서, 1부1권, p.251

15) 손소희, 남풍, 전계서, p.240

7) 신성숙, 외딴방, 겨울우화 내, 고려원, 1993, p.288

8) 이순원, 압구정동에 비상구가 없다, 중앙일보사, 1992, p.111

9) 윤희길, 예미, 동서 문화사, 1987, p.61

10) 박경리, 전계서, 1부2권, p.147

<표 3> 주거 공간 용어의 용도별 분류

시대구분 공간용도	1900 이전	1900 - 1930	1930 - 1950	1950 - 1960	1960 - 1970	1970 - 1980	1980 이후
방 1 침실	침방, 침실	침실	침실	침실, 부엌방	부엌방	부엌방, 지하침방	침실, 건넌방, 문간방, 갓방, 뒷방, 다락방, 다다미, 단칸방, 안방
방 2 침실 및 모임	안방, 건넌방, 사랑방, 큰사랑, 행랑방, 사치방, 침방, 침실, 큰방, 작은방, 아랫방, 머릿방, 윗방=윗방=상방, 바깥방, 뒷방, 침전, 별당, 윗간, 아랫간, 골방, 모방	안방, 건넌방, 사랑방, 사랑작은방, 작은방, 사랑작은방, 큰방, 행랑방=막간방, 줄행랑방, 침실, 별실, 별당, 윗방=윗방=상방, 아랫방, 윗방, 옆방, 윗간, 후간, 아랫간, 판자방, 장판방, 저편방, 온돌방, 단칸방, 골방, 협실, 구석방	안방, 건넌방, 사랑방, 작은사랑, 큰사랑, 큰방, 작은방, 행랑방=막간방, 줄행랑, 뜰 아랫방, 아랫방, 뒷방, 옆방, 온돌방, 다다미방, 이층방, 별당, 골방, 모방	안방, 건넌방, 사랑방, 큰방=육장큰방, 작은방, 옆방, 뒷방, 윗방=윗방, 뜰아랫방, 칸=온돌방, 일간방, 단칸방, 두칸방, 문간방, 중 간방, 별실, 골방,	안방, 건넌방, 큰사랑, 큰방, 뜰아랫방, 아랫방, 문간방, 두칸방, 다다미방	안방, 건넌방, 큰방, 작은방, 앞방, 옆방, 뒷방, 결방, 골방, 문간방, 둘째방, 넷째방, 골방	안방, 골방, 구석방
방 3 침실 및 손님접대	안방, 사랑방, 큰사랑, 앞사랑, 아랫사랑, 작은사랑, 바깥사랑,	안방, 사랑방, 큰사랑방, 작은사랑방, 큰방,	안방, 큰사랑, 큰방, 사랑방	안방, 사랑방, 큰사랑, 큰방, 가운데방	안방, 큰사랑, 큰방	안방, 큰사랑	
마루 1 침실(여름용) 및 모임	대청마루, 마루, 삼간마루, 대청, 대청마루, 봉당, 토방마루=토마루, 마루방, 들마루	마루=마리, 대청, 단칸마루, 토당.	마루	마루, 마루청, 대청, 토방, 마루방		마루=마리, 마루방, 토방, 마루청	
마루 2 모임 및 손님 접대	안마루, 안대청, 삼간마루, 마루, 대청마루, 삼간대청, 육간대청, 앞마루,	육간대청, 사칸대청, 큰대청, 큰마루, 안마루, 안방마루, 안대청, 대청마루, 사랑대청, 사랑마루, 양실=마루	육간대청, 대청마루, 마루방, 큰사랑, 앞마루, 사랑마루, 별당마루, 거실, 응접실	정마루, 대청, 사랑마루, 사랑대청, 앞마루, 마루방, 응접실, 거실	마루, 대청, 대청마루, 마루청, 응접실, 거실	대청마루, 거실	마루, 거실, 응접실, 거실마루
마당 1 작업 및 모임	마당, 안마당, 바깥마당, 사랑마당, 행랑마당, 뒷마당, 앞마당, 뒤꼍, 바깥뜰	마당, 안마당, 사랑마당, 행랑마당, 뜰, 타작마당, 바깥마당, 사창마당, 앞마당, 바깥뜰, 옆마당, 뒤꼍, 사랑뒤꼍, 뒤꼍, 안꼍	마당, 안마당, 사랑마당, 큰마당, 앞뜰, 뒤꼍, 뒤꼍	마당, 안마당, 큰마당, 뒤꼍	큰마당	마당, 큰마당	마당, 앞마당, 바깥마당, 뒤꼍, 뒤뜰, 뒤란
마당 2 미적·관상용	후원, 뜰, 뒤뜰	안뜰, 사랑뒤뜰, 사랑앞뜰, 별당뜨락, 서당마당, 후원	후원, 뒤뜰, 별당뜨락			뜰	
공부	책실, 책방	서당, 서재, 서고마루방	글방, 공부방	서재			공부방, 서재
가사	부엌, 정지, 부뚜막, 장독간(대), 안방부엌	부엌=법, 안부엌, 사랑방부엌, 행랑부 엌, 찬간, 찬방, 정지, 정기, 잔마루, 부석, 주방, 부뚜막, 장독가	부엌, 아궁이, 부뚜막, 장독가, 식당	부엌, 안채, 부엌, 사랑부엌, 정지	부엌, 안채부엌, 정지, 찬간, 개랑부엌, 식당, 식당방	부엌, 안채부엌, 정지, 부뚜막, 장독대	부엌, 입식부엌, 주방, 부뚜막, 아궁이, 장독간
저장 및 수납	광, 안광, 뒷광, 곳간, 마루광, 헛간, 다락, 잡잇간	광, 곳간, 헛간, 고방, 도장, 움, 사랑다락, 다락, 까대기, 차고	곳간, 헛간, 고방, 도장, 도방	헛간, 일곱간, 광, 곳간, 허드헛방, 나뭇간, 창고	헛간, 일곱간, 광	헛간, 일곱간, 광, 창고	창고
가축실	오양간, 굶은방, 마굿간	외양간=오양간, 마굿간	외양간, 마구간			외양간	우사, 마굿간, 돼지막
제사	제청, 사당방	제청, 사당, 상청, 제사모시는방	사당, 상청				
통로 및 복도	뒷마루, 난간마루	뒷마루, 윗마루, 쪽마루, 복도	뜰=뒷마루, 중계, 복도, 계단, 통로, 베란다	뒷마루	복도, 계단, 테라스		쪽마루, 나무계단, 계단, 베란다
출입구		현관	현관, 출입구, 홀	현관	현관	현관	현관
실외 공간							옥상
사용자별 용도	머슴방	셋시방, 신랑방, 머슴방, 아씨방, 처의방, 기랑방, 계집종들방, 객인들방, 거처방, 풍순네방	어머니방, 모친방, 제방, 거처방, 식모방	신방, 색시방, 머슴방, 할머니방, 내외방, 가정부방	노할머니방, 가정부방	자기방, 가정부방	그녀의방, 언니의방, 내방
특수 용도	마방, 봉늬방, 해산방, 수청방	대장간=성냥간, 마방(간), 세늘방=셋방=세방	외방, 보일러간, 취사장, 셋방	객실, 가겟방	가겟방	셋방, 자칫방, 가겟방	단칸세방, 지하실, 의상실

따라서 공간 명칭과 재료에 의한 명칭을 혼용하여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리고 「거실」과 「마루」와의 용어 관계는 다음의 문장을 제시해 본다. 「방이 좁고 내객은 많으니 까 턱없이 넓은 세간 마루에는 당지도 아니한 유리 분합을 들었다. 이 방을 둘러 댕기는 학생들은 한선생네 양실이라고 일컫는다¹⁶⁾」에서 손님접대를 주로 하는 「마루」를 「양실」로 명칭하고 있다. 사회계몽주의 영향이 한창이었던 1932년의 시대배경이 전통적인 공간을 서구화된 생활양식으로 전환시키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또한 「김장옥씨는 자기의 거실을 오상철씨에게 내어주기를 서슴지 않았으며¹⁷⁾」에서는 기거하는 방을 「거실」¹⁸⁾로 부르고 이를 손님이 기거하게 하는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내용의 배경 년도에서 알 수 있듯이 시대상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일본의 근대화 불결이 우리 나라로 유입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생활양식이 한국의 전통주거 공간용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장소는 세명의 조그마한 서재며 침실로 쓰이는 그의 거실이었다¹⁹⁾」에서는 다목적의 용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마루」의 용도는 다음의 문장에서 명확한 「거실」 용어로 발전하게 된다. 잔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담배를 붙여 불었다²⁰⁾」에서 소파라는 서구 문화양식의 가구를 겸비하는 장소로 명하게 된다. 즉, 한국 전통의 주거공간인 「마루」는 「거실」로 그 용어의 명칭이 서구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현대 주거에서는 이 두 가지 공간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빨간 비단의 식탁 의자에 웅송그리고 앉아, 거실 마루 끝에 걸린 겨울 햇빛자락을 물끄러미 바라보던²¹⁾」에서는 같은 공간을 두 가지 용어인 「거실 마루」로 합성하여 명하고 있으며, 이는 「대청」과 「마루」의 혼용 사용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마당」 공간용어에서는 두 가지 용도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용도는, 작업 및 사람들의 모임공간을 들 수 있으며, 「마당, 안마당, 사랑마당, 행랑마당, 뒤꼍, 뒷마당, 뒤뜰, 앞뜰, 옆마당, 타작마당,…」 등 주거공간내에 존재하는 모든 마당이 이에 해당한다. 초례 절차도 주판이가 간단하게 정하여 그날로 초례정인 마당에서 교배를 마치고 신방인²²⁾」에서는 관혼상제의 의식을 거행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저녁을 배불리 먹고 따끈한 숯불에 입가심한

마을 아낙들이 더러는 집으로 돌아가고 더러는 마루에, 나머지는 몇 명이 마당에 깔아 놓은 명석에 앉아 땀을 식히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²³⁾」에서는 모임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햇빛이 바른 행랑 뜰에는 명석에 아낙들이 둘러앉아 잡담을 하며, 제기를 닦고 있었다²⁴⁾」에서는 집안의 일을 뜰이라는 외부로 나와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미적 관상용의 용도를 갖는 것으로 「후원, 뜰, 사랑앞뜰, 서당마당, 별당뜨라…」 등의 용어를 추출하였다. 「사랑 앞뜰에는 햇빛이 화사하게 비치고 있었다. 돌담 용마루 높이 만큼 키를 지닌 옥매화, 매초롬한 회색가지들 뻗은 복련, 삼화에 석류나무, 치자나무는 마치 봄날의 햇빛을 받아 노곤한 것처럼 보였으나²⁵⁾」에서는 아름답게 다듬어진 화원을 연상하게 하는 하나의 관상용의 용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마당」 공간용어에서도 전술한 두 공간용어에서와 같이 뚜렷한 사용분리 보다는 복합적인 용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3에서 보여지듯이 공부용도와 가사용도, 저장 및 수납용도, 제사용도, 가족실용도, 통로 및 복도용도, 출입구용도 등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거 공간용어는 가장 그 사용목적용을 명확하게 표출하고 있는 용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용어 중에서 주목할 것은, 가사용도에 속하는 용어 중, 1900년대 이후부터는 「주방, 식당, 식당방」이, 저장용도에서는 「차고, 창고」, 통로 및 복도용도에서는 「층계, 복도, 계단, 베란다, 테라스」가, 출입구용도에서는 「현과, 홀」과 같은 외래 공간용어가 등장하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대적 역사의 영향이 커다란 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특이한 점은, 유교사상이 깊은 전통적 제사용도에 사용되었던 공간이 1950년 이후부터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주거공간이면서 실내가 아닌 실외공간으로서 「옥상」이란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용어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각 용도에 배속하지 않으면서 「방」의 내용을 내포하는 공간용어를 추출할 수 있었다. 「셋방방, 어머니방, 머슴방, 가정부방, 자기방, 언니방, 내방,…」 등, 이들 용어는 공간용도에 의하기보다는 「방」을 사용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또는 그 소유자에 의한 공간용어 명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외로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는 「해산방, 세늘방, 보일러간, 가겟방, 지하실, 의상실…」 등의 공간용어를 추출할 수 있었다.

5. 위치·범위·방향 별 주거 공간용어

공간 중에 두 개의 요소가 존재할 때 그곳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두 요소 사이에서 위치, 방향, 영역의 범주 등

16) 이광수, *홍, 한성도시*(주), 1935, p.31

17) 최정희, *인간사, 동서 문화사*, 1987, p.132

18) 内田青藏 : 『日本の近代住宅』, 鹿島出版會, 1932

「居間」은 일본의 전통 민가주거에서 일상적으로 茶の間과 연결되는 배치로서 침실과 가족들의 단란 모임을 갖는 방을 가리킨다. 1970년대 이전에는 주로 그 집의 주인 또는 부인의 전용실로 지적되고 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거실(居室)」로 명칭하게 되며, 서구의 문화 유입으로 주택개량운동 및 생활개선운동이 전개되고 가족의 개인적 생활이 중요시 되어 침실기능과 가족의 단란장소의 기능이 분리되어, 가족의 단란모임장소로서 「거실(居室)」이 변화되고 있다.

19) 손소희, *남풍, 전계서*, p.317

20) 박경리, *전계서*, 5부13권, p.453

21) 윤영수, *모든 벽은 분이다*, 작가세계, 1993, 가을호, p.165

22) 이광수, *인격정*, 1권, 전계서, p.66

23) 박경리, *전계서*, 1부1권, p.217

24) 박경리, *전계서*, 1부2권, p.171

25) 박경리, *전계서*, 1부1권, pp.21-22

과 같은 기본적인 연관관계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를 문학 작품에서 추출한 주거 공간용어에서 분류한 것이 표-4이다. 주거공간을 지칭하는 용어에서 「위 - 아래」, 「전 - 후」, 「안 - 밖」이란 공간 좌표계와 상응하는 공간용어를 읽을 수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공간과 공간이 서로 상대적인 관계를 맺고 나열되었을 때 지시되어지는 것이며, 좌표계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공간 내에서 인간이 직립하고 활동이 이루어지므로써 자연히 부여되는 방향인 것이다. 즉, 인간은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을 인식하고 다른 공간과의 구별을 피하므로써 자신의 공간에 성격을 부여하고 자신의 존재 여부에 의미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 「위 - 아래」에서 보여지는 용어는 「윗방, 상방, 위채, 윗간, 윗마루 - 아랫방, 아래채, 아랫간」 등이 추출되었으며, 용어 자체에서 공간이 위치하는 방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성립되었을까. 몇 가지 문장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행랑 뜨락에서는 아침부터 떡치는 소리로 요란했다. ...김서방은 깨끗한 차림을 하고 행랑에서도 상방인 넓은 방에 마을의 서서방과 함께 앉았²⁶⁾」, 「부엌과 안방, 널찍한 대청과 작은방으로 안배된 위채와 마주하여 아래채는 길 노인의 손주 내외의 방²⁷⁾」, 「“서방님이 오셨어? 왜 아랫방으로 먼저 가셨을까?”하고 허둥지둥 이부자리를 치우는데, 상직꾼이 우두커니 보다가 한참 만에야 깨우친 듯이 가만히 “작은 서방님이 오셨어요”하고 말하²⁸⁾」, 「집에는 앞대문과 안중문이 첩첩이 닫히고 아이종들은 모두 아랫방에서 잠이 들었는데²⁹⁾」, 「안방은 그 옛 단지를 비롯한 온갖 군입거리들이 들어찬 벽장을 뒤로하고 정좌한 할아버지의 은둔처였다. 옷방은 할아버지의 응접실이었다³⁰⁾」.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공간에서 「위 - 아래」의 의미는 생활환경에 있어서 서열을 표현하고 있다. 부모관계가 우선으로 위가 되며, 형제관계가 그 다음으로 아래에 해당하듯이, 또는 같은 직급에서도 위아래로 차등을 두는 전통적인 의식구조³¹⁾ 가족 공동체에서 생활의 위계(位階)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간 자체에 서열을 암시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시 문장 중에서, 집주인인 길노인은 위채를, 그의 직계손은 아래채를 주생활공간으로 하는 공간의 위계적인 사용을 읽을 수 있으며, 또한, 안방은 가족의 가장 위인 할아버지의 주거공간이 되고 그 다음으로 옷방이 할아버지의 또 다른 용도의 방으로 포함되어 있듯이, 「위 - 아래」가 의미하는 구조적인 서열은 공간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그 질서의 위력을 표시하고 있다. 즉, 「위」라는 용어는 힘에서 유래³²⁾되는 것과 같이, 인간의 모든 생활에서 위의 입장에 서려고 시립들은 노력하고, 그 반대

로 자신의 밑으로 지배라는 아래를 둬으로써 작게는 가족구성, 나아가서는 사회전반의 구조체계를 이끄는 자연발생적인 좌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히, 「윗목=웃목 - 아랫목」 용어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전술한 위치 개념과는 상이함을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몇 개의 예시 문장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주인이 방 윗목편에 앉아 아랫목에 앉은 이교리를 바라다보며 “세상에 망할라니까 별놈에 벼슬이 다 있습디다³³⁾」, 「심선생과 주인 선생이 아랫목에 나란히 앉아 있고, 걱정이 형과 유복이 아우가 윗목에 노련히 서 있다³⁴⁾」, 「화를 참는 못마땅한 강강한 목소리와 함께 건넌방 문이 활짝 열린다. 방안의 젊은 애들은 우중우중 일어서며 아랫목에 앉았던 상훈은 윗목으로 내려섰다³⁵⁾」 신분 서열상 위인 사람이 아랫목에, 아랫격인 사람은 윗목에 위치하는 것을 읽을 수 있다. 동일한 실내공간내에서 위, 아래로 장소가 구분되는 현상은 한국전통의 온돌구조와 관계를 갖는다.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시설로서, 화구(火口)인 아궁이와 가까운 곳을 방의 내부에서는 아랫목이라 지적하고, 화구와 먼 곳에 위치하는 곳을 윗목=웃목으로 하고 있음은 전통으로 계승되어 온 일반적인 생활상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시 말하여, 화구와의 거리에 의해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위계성과는 틀린 점이 발생한다. 아랫목은 아래(下)의 의미로 명칭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윗자리로서의 상좌(上座)로 사용하며, 이에 반하여 윗목=웃목은 위(上)의 의미를 갖지만 아랫자리인 하좌(下座)로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위 - 아래」 위치 관계는 불(火)이란 양기(陽氣)의 온도 분포거리에 의해 성립된다고 생각되어진다. 즉, 양기는 주거와 주생활에 활력을 부여하는 음양오행과 연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³⁶⁾. 동일한 공간 내에서 따뜻한 양기가 도달하는 거리에 의해 분리되며, 위 - 아래」가 뜻하는 원초적인 질서개념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위계에 의한 의미와는 일치하지 않는, 오히려 반전(反轉)되는 개념으로 해석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외의 「머릿방, 방머리, 윗층 = 위층, 옥상, 다락방 - 밑층, 지하실」 등의 용어에서는 전술한 의미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순수한 공간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이란 기본적인 위치관계를 표현하는 공간용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머릿방, 방머리」는 인간의 신체 상태와의 관계로부터 공간의 방위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이 공간 안에서 어떠한 행동과 함께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체의 가장 윗부분으로 일어서서 시작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방향이 「위」에 위치하는 공간이 되며, 그 반대로 신체의 가장 밑부분인 바닥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아래」의 공간으로 위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26) 박경리, 전계서, 1부2권, p.172

27) 박경리, 전계서, 6부11권, p.25

28) 이광수, 임격정, 2권, 전계서, p.95

29) 이광수, 임격정, 2권, 전계서, p.243

30) 이문구, 관훈수필, 동서 문화사, 1987, p.314

31)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 구조, 문리사, 1977, p.265

32) O.F. Bollnow, Mensch und Raum. 空間と人間. 塚本 一譯. セリカ書房, 1988, p.46

33) 이광수, 임격정, 1권, 전계서, p.36

34) 이광수, 임격정, 1권, 전계서, p.173

35) 염상섭, 삼대, 하권, 범우사, 1990, p.118

36) 서귀숙, 日本と韓國における住宅に関する研究, 京都工芸繊維大学大学院 碩士論文 pp.70-73

<표 4> 주거 공간 용어의 방향·위치·범위별 분류

시대 구분	방 향 · 위 치									영역 범위	
	위(上)	아래(下)	전(前)	후(後)	안(內)	밖(外)	사이	가장자리	불분명	근접	원방
1900 이전	상방, 뒷간 윗복=웃복, 방머리, 다락, 머릿방	아래채, 아랫목, 아랫방, 아랫간 아랫사랑, 뜰아랫방	앞마당, 앞마루, 앞사랑	후원, 뒷간, 뒷광, 뒷마당, 뒤뜰, 뒤꼍, 뒷방	안사랑, 안마루, 안마당, 안대청, 안뒷간	바깥문, 바깥방, 바깥마당, 바깥뜰, 바깥사랑	중문간, 중대문	마루끝	골방	문간옆, 문간, 마당가	건넌방, 별당
1900-1930	상방, 윗복=웃복 윗방, 윗마루, 위채, 윗간, 사랑다락, 다락	아랫방, 아랫목, 아래채, 아랫간	앞방, 앞마당, 앞뜰, 사랑앞뜰	후원, 별당, 후원, 후간, 뒤방, 뒤뜰, 사랑뒤뜰, 뒤채, 뒤채뜨락, 뒤켠, 뒤꼍, 뒤안, 뒷간 뒤란, 뒤부석	안사랑, 안마당, 안뜰, 안부엌, 마루안쪽방, 안대청, 안마루	바깥마당, 바깥사랑	중대문, 중문, 중간문	모퉁이방, 마당귀, 마루끝	골방, 구석방, 행랑구석진방, 윗복 구석자리	대문간, 옆마당, 옆방, 문전, 사랑문간, 마당가, 우물가	건너방, 별실, 별채, 별당, 별당 건넌방, 저편방, 건넌편방
1930-1950	웃복, 위채, 위층	아랫방, 아래채, 아래층, 아랫복	앞마루	후원, 뒷방=뒤방 후문, 뒤뜰, 뒤꼍, 뒷간, 뒤켠	안마당	외방	중문	마루끝	골방, 방구석	옆방, 문간, 문전, 장독가, 마당가, 마룻가	건넌방, 별채, 별당
1950-1960	웃방=윗방, 윗층	아랫방, 뜰 아랫방, 밑층, 아래채	앞마루	뒷방, 뒷간, 뒤뜰, 뒤채	안마당		중간방, 가운뎃방	마루끝, 마당귀	골방	옆방, 문간방	건너방, 별실
1960-1970		아랫방, 뜰아랫 방, 아래채		뒤꼍				마당귀		문간방	건넌방
1970-1980	다락방	아랫방, 아래채, 지하실방	앞방	뒷방, 뒤뜰, 뒷간				마당귀, 골방	골방	옆방, 곁방, 문간방, 대문간, 수돗가	
1980 이후	위층, 다락방, 옥상	아래층, 아래채, 지하실	앞마당	뒷방, 뒤뜰, 뒤꼍, 뒷간, 뒤란		바깥마당		갯방	골방, 구석방		건넌방

또 다른 공간 좌표계로 「전 - 후」에 해당하는 공간용어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앞마당, 앞마루, 앞대문, 앞방 - 뒷간, 뒤뜰, 후문, 뒤채, 뒤방, ... 등을 들 수 있다. 「전 - 후」는 사람의 신체와 밀접한 관계를 갖으며, 사람이 어떠한 행동과 함께 향하고 있는 방향을 말한다. 즉, 무언가 작업에 임하고 있는 시선 방향을 「앞 = 전」이라 지시하고, 그 반대 방향인 신체의 뒤편에 있어 시각적으로 볼 수 없는 방향을 「뒤 = 후」로 지시하고 있는 것은 세계 공통적인 사고이다.³⁷⁾ 「질세기를 신고 뒤란으로 돌아간 용이는 술가지 한 단을 들었다. 앞마당으로 되돌아 나온 그녀는 기둥의 조롱박을 훑 붙여 고고 삼짝을 나선다³⁸⁾. . . 옥간 대청은 시원했다. 터놓은 대청 뒷편에 후원이 내다 보인다. 그곳은 가뭇을 모르는가. 수목으로부터 삼삼한 내음이 습기 실은 바람이 불어왔다³⁹⁾. 「사랑의 앞뜰에는 햇빛이 화사하게 비치고 있었다⁴⁰⁾. 「별채 모퉁이를 돌아서면 뒤켠 대숲이다⁴¹⁾. 「어머니는 앞에 두른 흰 치마에 손을 숨기고 앞마루로 해서 윗방을 지나 대청으로 들어갔다⁴²⁾. 첫 번째 문장에서는 집 전체를 정지점으로 하여, 집의 앞면, 시각적으로 말하면 집의 얼굴, 즉, 주생활의 정면과 마주하는 전망에 해당하는 공간이 되어 그곳에 앞마당을 배치하고, 정면과 반대되는 후방에 있는 공간이 뒤란으로 지적되고 있다. 「뒤란으로 돌아간... 앞마당으로 되돌아 나온」의 문귀에서도 집채(棟)를 축으로 이를 중심으로 돌아

가고 다시 되돌아 나오는 움직임이 이를 시사하고 있다. 이외의 문장에서는 대청, 사랑, 별채가 정지점이 되어 각각의 「전 - 후」공간 용어가 불리어지고 있다. 예시 문장들에서 볼 수 있듯이 주거공간 전체가 또는 어느 하나의 공간을 중심 축으로 하여 고정되고 이를 좌표계로 결정하여 「전 - 후」공간을 지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때 주거공간은 그 안에서 사람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신체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자립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신체를 중심으로 하는 좌표축이 아닌, 주거공간 자체가 좌표축이 되어 형성되는 공간의 위치개념인 것이다. 「안 - 밖」의 공간용어로는 안마당, 안대청, 안마루, 안사랑, 안뜰, 바깥마당, 바깥사랑, 바깥뜰, 바깥방 등을 볼 수 있으며, 1960년 이후에는 보이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전통주거에서 일반적으로 명칭 되어진 용어라고 말할 수 있다. 「갯바지와 심바지는 바깥방에서 앉아서 문을 열고 내다보고, 걱정이와 불학이 외에 급동이까지 요복이 좌우에 둘러서고 섬섬이는 안마루 끝에 서서 바라보았다⁴³⁾」의 예시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용어는 전통주거의 안채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이에 속하지 않는 이외의 공간을 동일한 주거공간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부에 위치하는 실외공간으로 명칭하고 있다. 「바깥사랑, 안사랑 하나까 대단한 집구모 같지만 기와집은 텅실하게 높은 아래 위채 두 봉과 고방이 초가인데⁴⁴⁾」의 문장에서 안사랑과 바깥사랑은 분리되어 있으나 명확하게 하나의 주거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안 - 밖」의 공간위치는 「위 - 아래」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실제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보다는 가족의 위계질서를 표현하는 위치개

37)中樂堂, 『空間と人間 - 文明と生活の 假にあるまの』, 中央新書, 1989, p.101

38)박경리, 전계서, 1부1권, p.173

39)박경리, 전계서, 1부1권, p.270

40)박경리, 전계서, 1부1권, p.21

41)박경리, 전계서, 1부1권, p.223

42)손소희, 전계서, p.241

43)이광수, 임격정, 2권, 전계서, p.180

44)박경리, 전계서, 3부7권, p.56

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족과 주거에서 가장 상위에 있으며 중요한 것은, 주거공간이란 영역 범위 내에서 외부와의 접촉이 단지 얇게 내부 중에서도 안(內)쪽으로 그 위치를 정하고, 그 다음의 것은 처음의 안(內)쪽인 내부보다는 한 단계 밖(外)에 있는 그러나 여전히 주거영역의 안(內)인 내부공간에 정하는 위치관계로 생각할 수 있다. 가장 안(內)쪽의 내부공간에서 부터 볼 때 주거영역의 외부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또 하나의 내부공간은 떨어져 있는 밖(外)의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주거 공간용어에서 「위 - 아래」는 중심축의 수직적 방향의 위계를 시사하며, 「안 - 밖」의 용어는 공간을 평면적으로 관찰하는 수평적인 방향의 질서 위계의 개념을 시사하고 있다.

「사이」는, 한자의 「間」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공간과 공간이 접할 때 그 경계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공간을 가르키며, 하나의 공간에서 다른 또 하나의 공간으로 이동하기에는 반드시 이 경계의 공간이 존재함을 경험하게 된다.⁴⁵⁾ 이에 속하는 용어로 「중간방, 가운데방」을 추출하였다. 「손님은 가운데방 앞까지 걸어와서 비로소 주인을 찾는다⁴⁶⁾」, 「최치만씨의 집 안채의 중간방 마루에 진생원이 앉아 있었다⁴⁷⁾」의 문장에서 첫 번째의 「가운데방」은 어떤 공간 사이에 있는 방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용어 자체에서 공간의 중간 위치를 암시하는 공간용어로 받아들여지며, 두 번째의 「중간방」은 문장의 내용으로 보아 전통주거에서 일반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안방과 건넌방의 사이에 위치하는 마루공간을 지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주거 공간용어로서 「중문, 중간문, 중대문」을 추출하였다. 이들 용어는 안채와 사랑채 또는 행랑채 공간을 상호 분리시켜 각각의 공간에 고유의 성격을 부열 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들 각각의 독립된 공간을 통과하고 연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중간적인 공간의 성격을 내포한다.

이외의 위치로서 「가장자리」와, 위치의 지적이 「불분명」한 공간용어를 들 수 있다. 가장자리」는 일반적으로 공간명칭에 「~끝, ~귀」의 용어를 부가하여 명확하게 주거공간에 있어서 가장 끝에 또는 그러한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교실로 정한 모퉁이 방에 혼자 앉아⁴⁸⁾」, 「미나 아래층 지하실과 각방 건넌방 위층은 판사한테 세주고⁴⁹⁾」에서와 같이 동일 건물 내에서 공간이 끝나는 지점에 위치하며 주거공간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외부공간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불분명」한 공간용어로는 「골방, 구석방」을 들 수 있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흰 신문지를 어두컴컴한 골방구석에 쌓아 놓고 앉아 며칠을 거둬들 연습했다⁵⁰⁾」, 「입식 부엌 옆 골방 뒤가 공지였고 도

어를 닫으면 그 방은 기적같이 조용했다⁵¹⁾」, 「...관수는 일어서 골방 쪽으로 가고... “잘 다녀오게” 구석방에서 나온 얼굴이 싹누런 사내는 어서 가라는 듯 손짓해 보인다⁵²⁾」 등의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에서 시선이 닿지 않는 곳 또는 주목받지 못하는 공간으로, 하나의 주된 목적을 갖기보다는 그 존재가 부속적인 공간으로, 주거 공간에 위계성을 부여시킬 경우 가장 하위에 귀속되는 공간을 가르키고 있다. 용어의 명칭에 있어서는 「골방=구석방」을 동일한 공간으로 관측할 수 있으며, 용어만으로는 공간위치가 명확하지 못하나, 관련문장의 내용상으로는 「가장자리」와 유사한 위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장자리」와 「불분명」으로 분류한 공간용어는 경우에 따라서 같은 공간 위치를 갖는 용어로 볼 수 있겠다.

실내공간의 영역간 범위별로는 「근접 - 원방」의 두 가지 범위로 분류되었다. 이들은 어떠한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을 지시하고 의미하는 위치관계를 내포한다. 즉, 중심이 되는 공간과의 거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학의 문장 내용에서 파악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실제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거리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문학은 <이야기 - 듣기>의 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이야기의 주체가 되는 이야기하는 사람과 듣기의 주체가 되는 듣는 사람이 문장에 등장하게 되고 이들은 각각 공간을 점유하고 있으며, 또한 내용에서 이들이 지시하고 가르키는 대상이 존재하는 공간도 발생한다. 즉, 이들 공간은 상호 연관관계를 형성시킨다는 소설의 구조특성⁵³⁾을 인용하기로 한다. 「근접」범위로 추출된 공간용어에는 「옆방, 곁방, 문전, 문간, ...」 등을 볼 수 있다. 예시 문장을 제시하면, 「저두 이 집에서 기거합니다. 바로 선생님 옆방 인걸요⁵⁴⁾에서 읽을 수 있듯이, 이야기하는 주체가 차지하는 방은 듣는 주체가 되는 선생님 방의 바로 이웃해 있는 장소를 가르키고 있다. 여기에서 듣는 주체의 방과 지시 대상이 되는 방은 같은 장소를 말하며, 선생님 방을 먼저 지적하고 이 방의 주위 영역에 밀접하게 접해 있는 자신의 방인 옆방을 명칭하고 있다. 즉, 공간과 공간이 상호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각각의 공간을 나타내지만, 그 간격에 대한 개념은 매우 가까움을 그리고 친밀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외의 용어로 「북동이네가 와서 귀남네랑 함께 장독가에서 김치거리를 다듬고 있더라⁵⁵⁾」, 「최참봉하고 문간에서 수군거리다가 최참봉은 사랑으로 들어가 버리고 수원집은 허둥지둥 나가더라니 저희끼리 무슨⁵⁶⁾에서와 같이 장독이 놓여 있는 곳, 문이 있는 곳 등 어느 하나의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 듣기, 대상의 주체가 되는 각각의

45) Edmund Leach, 文化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 青木 保 譯, 紀伊屋書店, 1981, pp.72-75

46) 손소희, 전계서, p.241

47) 손소희, 전계서, p.246

48) 이광수, 무정, 동서 문화사, 1987, p.53

49) 박영환, 지상의 방 한칸, 한겨레, 1983, p.373

50) 이문구, 전계서, p.320

51) 박영환, 전계서, p.373

52) 박경리, 전계서, 1부5권, p.175

53) 前田 愛, 都市空間のなかの文學, 筑波書房, 1982, pp.5-61

소설에서는 「이야기의 주체가 되는 공간」·「듣기의 주체가 되는 공간」·「대상의 주체가 되는 공간」의 삼중구조의 공간관계가 성립한다.

54) 김남천, 맥, 을유문화사, 1989, p.318

55) 박경리, 전계서, 4부12권, p.84

56) 염상섭, 전계서, 하권, p.137

공간이 그 주위에 존재하게 되며 그 거리는 명확성을 보이지 않으나, 중심공간이 전범하게 지배하는 범위 내에 있는 근접의 개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원방' 범위의 공간용어로는 「건넌방, 별실, 별당, 저편방...」 등을 추출하였다. 「일어나 저편 방으로 간다⁵⁷⁾」, 「건넌방 쪽에서도 툭툭툭 킁소리만 건넌방⁵⁸⁾」, 「안방에서 단천령과 조향이 이런 수작을 하는 동안에 건넌방의 사령들은 두어 차례나 간다고 서둘렀다⁵⁹⁾」, 「안채와 별당 사이에 한 그루 서 있는 땀나무 속에서 우는 걸까. 찢어지게 공간을 흔들며 매미가 운다⁶⁰⁾」의 예시 문장 등에서 이야기의 주체 공간과 지시 대상이 되는 공간과는 명확하게 분리되고 그 떨어져 있는 거리 또한 이야기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노력하지 않고는 시각적으로 차단되는 어느 정도의 먼 거리를 유지하고, 중심공간이 지배하는 범위의 밖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떨어져 있는 각 공간은 서로 접촉하지 못하는 비접촉성의 성격을 가지므로 친밀성보다는 중심공간과 대상이 되는 공간이 대면하고 있는 상대적인 관계, 즉, 주거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의 사적(私的)인 상대관계의 공간개념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겠다.

6. 규모별 주거 공간 용어

문학작품에서 공간에 대한 규모를 추출한 것이 표 5이다. 규모에 대한 지시 용어는 명확하게 그 크기 또는 면적을 표시하는 것과, 명확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명확한 규모의 지시는 전 시대구분에서 찾아 볼 수 있었으며, 한국 전통의 건축 척도 기준은 간(間)의 단위를 하여 실(室)의 크기를 명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안은 유복한 것 같다. 사간 위치에 아래채가 삼간, 두 동은 초가였고 남쪽을 향해 돌아앉은 것이 사랑인데 지붕은 기와다⁶¹⁾」의 예시문장에서 위채의 크기가 전체 사간(4間)으로, 이는 위채 건물의 정면 부분에서 보여지는 기둥이 5개로 4스팬이라는 표현이나, 문장에서 이것이 정면을 지시하는 것인지, 측면을 가르키는 것인지 묘사가 정확하지 못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정면의 측정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따라서 측면에 기둥이 2개로 1스팬을 이루는 가정 하에 4스팬×1스팬=4스팬(間)이 만들어지며, 다시말해서 실(室)이 4개로 구성되는 평면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래채에서도 기둥이 4개로 3스팬의 크기를 표현하고 있다. 1980년 이후에는 이러한

척도기준이 「평(坪), 층(層)」으로 표기됨을 볼 수 있다. 「방 둘에 마루 하나 해서 4백이었고 신식 슬라브의 새 집이었다. 스물 두 평 짜리였고 준공검사도 끝내지 않은 명색이 국민주택이었다⁶³⁾」, 「서른 일곱 개의 방이 있던 그 집, 미로처럼 구불구불 들어가 이제 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곳에 작은 부엌이 딸린 방이 또 있던 3층 붉은 벽돌집⁶⁴⁾」의 예시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스물 두평」이란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숫자를 제시하며 집의 규모를 표현하거나, 건물을 수직적인 개념에서 관찰하여 「3층」이란 전체 규모를 표시하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통의 간(間)을 크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 하나의 규모 분류에서 불명확한 크기의 지시 용어에는, 공간 용어에 「큰 ~, 작은 ~」이란 공동된 용어를 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첫 번째는 「나귀를 맡겨 놓고 겨우 다리를 뺐을 만큼 작은방에 들어간 평산은 벽에 기대어 땀방울을 닦았다⁶⁵⁾」의 예시문장에서 실의 크기를 지적하는데 단순히 작다(또는 크다)라는, 그것이 어느 정도 크기인가는 「겨우 다리를 뺐을 만큼」이란 표현으로 지적하듯이 부정확한 개념의 크기를 갖는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이놈의 집구석에서는 아들 차지 큰방물림이 벌어지네 그랴⁶⁶⁾」, 「제사를 모시기 위해 큰집에 가고 없었다⁶⁷⁾」, 「심지어 주인 영감이 쓰던 큰 사랑⁶⁸⁾」, 「유월이 너는 사랑방에 불지피고 이부자리도 날아가고... 오래간만에 집안은 생기가 돌고 분주하였다. 그러나 사랑 작은방에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깨우라 이르지는 않았다⁶⁹⁾」 등의 문장에서

<표 5> 규모별 주거 공간 용어

규모 시대구분	명확한 규모	불명확한 규모
1900 이전	삼간(三間)마루, 삼간(三間)대청 오간(五間)곳집, 육간 대청, 단간방	큰방, 작은방, 큰사랑, 작은 사랑, 큰대문
1900 ~ 1930	삼십육문, 육간 대청, 단간 방, 단간 마루, 삼간(三間)초가지붕, 방 한칸, 두칸 방, 사간 대청, 삼간(三間)오두막, 두칸 오두막, 두칸 곁집, 사간 위채, 아래채 삼간	큰방, 작은방, 큰사랑, 작은 사랑, 사랑 작은방, 큰 마루, 넓은 방, 넓은 마당, 조그마한 방, 큰 대청, 큰집, 작은집
1930 ~ 1950	육간 대청, 간반 방, 단간 초막, 다다미 방 한칸	큰방, 작은방, 큰사랑, 작은 사랑, 큰사랑채, 큰마당
1950 ~ 1960	육장 큰방, 단간방, 간반 방, 한칸 방, 두칸방, 일곱칸 광, 일곱칸 방, 일간 방	큰방, 작은방, 기름한방, 큰사랑, 큰사랑채, 큰마당
1960 ~ 1970	두칸 방, 일곱칸 광	큰방, 작은방, 큰사랑, 큰사랑채, 큰마당
1970 ~ 1980	두칸 방, 일곱칸 광	큰방, 작은방
1980 이후	다칸 방, 방 한칸, 다칸 셋방, 이층 다다미 단칸방, 부엌 한칸, 대지 1백평에 건평 25평의 단독주 택, 스물두평짜리 국민주택, 방은 3평도 채 못되었다.	

57)이광수, 무정, 전계서, p.91

58)최정희, 전계서, p.14

59)이광수, 임격성, 전계서, 9권, p.68

60)박경리, 전계서, 1부3권, p.220

61)박연복, 한국건축사 강론, 문운당, 1988, p.109

한국의 고건축에서는 길이의 대소에 관계없이 기둥과 기둥 사이(스팬)을 간(間)으로 표시하며, 이는 길이, 넓이의 개략적 표현인 동시에 평면형식과 구조를 표현하는 것이다. 문학 작품에서는 동일한 규모의 의미로써 '간'으로도 표현하고 있다.

62)박경리, 전계서, p.176

63)박영환, 전계서, p.376

64)신경숙, 전계서, p.286

65)박경리, 전계서, 1부1권, p.283

66)유홍길, 전계서, p.23

67)박경리, 전계서, 3부7권, p.446

68)엄상섭, 전계서, 하권, p.287

69)박경리, 전계서, 1부3권, p.25